

**해양경찰청****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4. 20.(수) 10:00	배포 일시	2022. 4. 20.(수) 10:00
담당 부서	장비기술국 장비기획과	책임자	과 장 한상철 (032-835-2071)
		담당자	계 장 이윤중 (032-835-2172) (010-5273-3566)

동해 바다 지킴이 최신형 200톤급 경비정 2척 배치

- 구형 100톤급 경비정을 최신 200톤급 경비정으로 탈바꿈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새롭게 건조된 200톤급 경비정 2척(해우리 53호·55호)을 포항해양경찰서와 동해해양경찰서에 각각 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200톤급 경비정은 올해 퇴역한 100톤급 경비정을 대신하여 연안해역에서 해양범죄 예방·단속, 해양사고 대응, 중요 임해시설 보호 및 해양오염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100톤급 경비정은 선체 부식 및 엔진 출력 저하 등 28년간 운항으로 인한 장비 노후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형 경비정은 길이 42.3m, 폭 6.8m로, 디젤엔진 2대와 프로펠러 추진기 2기를 장착해 최대속력 27노트(시속 50km/h)로 고속운항이 가능하고, 최신 반도체방식(SSPA) 레이더와 원거리추적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전용엔진을 탑재한 소화펌프를 장착해 시간당 240,000ℓ의 소화수 공급으로 효율적인 선박 화재 진압이 가능하고, 5m급 고속단정과 무선조종 인명구조장비를 탑재하여 구조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 완벽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우수한 성능의 경비정 건조를 위해 건조사 및 감리사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며,

“해우리 53호·55호가 동해 해역을 누비며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신형 경비정은 이달 말까지 장비숙달과 직원결속력(팀워크) 강화를 위한 취역훈련을 마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해상치안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우리 53호 해상 시운전 모습>

